

**내년 예산 117조 5,429억원,
1인 稅부담 318만원(2003. 9. 23)**

내년 정부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추가 경정예산 포함)보다 2.1% 늘어난 117조 5,429억원으로 편성되며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균형재정으로 편성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해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1인당 세금부담은 올해보다 6.0% 증가하는 것으로 경제규모가 커지는 반면 인구증가가 정체(0.6% 증가)하면서 1인당 조세부담 규모는 늘어났다. 이를 4인가족 기준으로 보면 세부담이 가구당 1,273만 6,000원에 이른다. 한편 국내총생산(GDP)에서 총조세(국세에서 지방세를 합한 금액)가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2.6%로 올해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이러한 예산규모를 조달하기 위해 내년 국세 수입(일반회계 기준)을 올해보다 6.4% 증가한 122조 3,446억원으로 책정했다. 내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복지 12조 1,551억원(증가율 9.2%) △국방 18조 9,412억원(8.1%) △연구개발(R&D) 6조 559억원(8.0%) △사회간접자본 17조 1,679억원(-6.1%) △농어촌 지원 10조 5,542억원(1.2%) △산업·중소기업 3조 4,289억원(-11.2%)이다. 기금 분야별 사업규모는 △37개 사업성 기금 60조 3,000억원(증가율 23.2%) △국민연금 등 4개 연금성 기금 74조 9,000억원(31.1%)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4개 계정성 기금 102조 1,000억원(21.5%) 등이다.

**중국, 파키스탄에 대형
시멘트 생산라인 수출(2003. 9. 24)**

허페이 시멘트생산/설계연구소가 최근 파키스탄의 럭키그룹에 미화 1,780만달러 상당의 시멘트 생산라인을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일일 3,000톤의 생산용량을 갖춘 이 생산라인의 조립이 완료되는데는 15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는 파키스탄내 최대 규모로, 완공될 경우 현재 파키스탄내 2위업체인 럭키그룹이 선두 시멘트기업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허페이 시멘트연구소는 2001년부터 파키스탄 시멘트 제조업체들과 협력관계를 형성해 파키스탄으로의 시멘트 수출을 확대하는데 일조해 왔다.

**건교부, 16개 민자고속도로 건설
(2003. 10. 6)**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15개 노선을 포함, 16개 노선의 고속도로를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노선은 총 연장 597.6km로 22조 7,69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타당성 검토가 진행중인 노선은 제2경인 연결, 화도~양평, 서울~동두천, 수원~광명, 천안~평택, 송현~불로, 제2영동, 화성~봉담, 영천~상주, 서울~문산, 송도~파주, 송도~화성, 시흥~화성, 광명~서울 등으로 이중 13개 노선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건교부는 이들 14개 노선에 대해서는 연말을 목표로 추진중인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기본계획을 토대로 추진방향과 시기 등을 결정해 사업을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사업별로는 경북 영천시 북안면과 상주시 낙동면 유포리를 잇는 영천~상주간 고속도로(90km)와 서울~춘천간(62.1km) 등 2개 노선은 사업비가 2조원을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프랑스 라파즈, 중국시장 잠재력 커
(2003. 10. 8)**

프랑스계 시멘트업체인 라파즈사는 중국시장 여건이 아직 열악하고 투자수익도 그룹 평균을 밑돌지만 여전히 중국을 아시아 지역에서 잠재력이 가장 큰 시장으로 보고 있다고 베르나르 카스리엘 CEO가 말했다. 카스리엘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은 거대한 시장이지만 동시에 가격 및 경쟁면에서

여건 역시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라파즈는 현재 중국에 4개의 시멘트 공장과 2개의 석고공장, 9개의 지붕타일 생산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 3억 5,000만달러 가량이 투입됐다. 카스리엘 회장은 중국내 투자수익률이 평균을 밑도는 것 역시 예상했던 일이라며 현재 2개의 시멘트공장, 그리고 석고공장과 지붕타일 시설 한곳씩만 흑자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시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라파즈의 시장 점유율은 극히 작다고 말할 수 있다며 향후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일, 퇴직 임직원 소사장 제도

(2003. 10. 8)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부문 임금협상 부진을 빌미로 파업에 들어갔던 화물연대가 16일만에 항복을 선언한 것과 관련, 언론에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백기사’들이 등장, 사건해결에 실마리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시멘트 출신이 운영하는 운송회사 소속 직원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 이들은 물리적 위협도 서슴치 않은 화물연대측의 운송중단 요구에도 아랑곳 않고 벌크시멘트를 묵묵히 실어 날랐다. 이들의 용기와 정부 및 사업주들의 강경 일변도적 자세에 자극받은 BCT 기사들이 속속 현업에 복귀, 투쟁의 대오가 흐트러지면서 화물연대측은 파업종료를 선언할 수 밖에 없었다. “기업은 종업원과 그 가족의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한일시멘트 창업주 고(故) 허채경 회장의 인간존중 경영이념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한일시멘트는 10여년 전부터 ‘소사장제’라는 독특한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퇴직한 임직원들이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일종의 퇴직보험인 셈이다. 이들 소사장은 대부분 한일시멘트가 생산하는 시멘트나 레미콘을 실어나르는 운송회사를 차려 놓고 있다. 한일시멘트는 대부분 사업장에서 춘투(春鬪)나 하투(夏鬪)나 하며 연례행사화 돼버린 노사분규 홍역을 단 한차례도 겪은

적이 없으며 복지제도는 직원들로부터 확실한 신뢰를 얻고 있다. 정환진 사장부터가 감동경영을 앞장서 실천하고 있다. 생산직 근로자가 많은 업종 특성상 체력단련 프로그램이 잘 구비되어 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이 회사 자랑거리다. 일례로 단양공장의 경우 수영장이나 테니스장, 헬스장을 전면 무료 개방하고, 대도시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희망사원에게는 휘트니스센터 정기 회원권을 제공한다.

서울시, 공공임대 6만 가구 추가 건설(2003. 10. 10)

내년부터 3년동안 서울시내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소규모 택지를 중심으로 총 6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추가 건설된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부터 2년동안 상암·당산·장월지구 등에 1만 4,000여가구, 올해 장기·발산·은평·강일지구 등에 2만 6,000여가구의 임대주택을 건설한데 이어 내년부턴 ‘2단계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추진, 오는 2006년까지 총 6만가구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2단계 공공임대주택은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건설되며 재개발 임대주택, 시설이적지, 그밖에 기능이 폐지된 도시계획 시설용지나 소규모 택지에도 조성된다. 시는 특히 지금까지의 1단계 사업과는 달리 2단계 사업에서는 단지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비율을 1대 1로 건설, 임대·분양주택을 혼합 배치하고 건설된 임대주택의 20%를 관할 자치구의 입주자격 주민에게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이는 대규모 임대주택단지 신규조성에 따른 복지시설 비용 등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 건설과정에서 자치구 및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시는 대규모 임대주택단지 대상지역을 확보하는 일이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임대주택을 분산 공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최소단위인 20가구 이상의 소규모 택지를 적극 발굴해 전용면적 15평 규모의 임대주택도 건설·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산업, '내년 건설경기 침체 불가피'

(2003. 10. 16)

건설산업연구원이 작성한 내년 건설경기 전망과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건설수주는 부동산규제 강화로 인한 민간수주의 대폭적인 감소로 올해보다 10% 줄어든 87조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올해 건설수주는 부동산경기 활황과 정부의 대형 공공공사 발주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나 민간수주는 19% 증가한 62조원, 공공수주는 10% 증가한 34조원에 달했었다. 하지만 내년 건설수주는 부동산규제 강화로 민간발주 특히 재건축 허용연한 강화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실시의 영향을 받는 재건축사업 발주가 크게 줄어들면서 큰폭의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공공수주는 올해와 큰 차이가 없는 33조원 가량이 될 전망이지만 민간수주는 올해보다 13%나 줄어든 53조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주택부문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실시에 따라 사업승인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게 됨으로써 재건축사업의 신규 수주공백이 불가피해져 올해보다 수주량이 19%나 줄어들 전망이다. 또 주상복합,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부문도 분양전 대지소유권 확보와 착공후 분양 의무화 등 분양관련 제도가 대폭 강화됨으로써 사업물량이 올해보다 5%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 레미콘산업 재편 가속

(2003. 10. 18)

일본의 레미콘산업이 장기불황 등의 여파로 인한 수요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생산집약화나 공동수송 등 다양한 타개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레미콘협회가 분석한 일본레미콘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0년대 이후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레미콘수요가 급감하고 있는데다 업체간 과다경쟁으로 레미콘업체의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93

년 이후 레미콘업체와 공장수는 10% 이상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합리화를 위한 공장집약화와 공동화작업을 거쳐 구조조정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의 레미콘 출하량은 지난 96년 1억 8,000만^m의 출하량을 기록한 후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1억 3,141만^m가 출하됐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수요부문별 출하비중은 민간건축분야가 46.6%로 가장 높았으며 하천·치수시설, 댐, 제방 등의 수요가 22.5%, 도로 13%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전국적으로 공공공사의 축소와 대규모 민간공사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지난 1분기 출하량은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7.3%가 줄어든 3,057만^m, 상반기에는 6,027만^m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레미콘의 상반기 출하량인 6,819만^m보다 13% 가량 적은 것이다

시멘트 수입물량 크게 증가

(2003. 10. 20)

시멘트 수입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관련업체에 따르면 올들어 중국산과 일본산 시멘트 수입이 크게 늘면서 지난주 이미 지난해 연간 총 수입물량인 119만 2,000톤(크링카 포함)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들어 시멘트 수입은 작년에 비해 24% 가량 늘고 있어 연간기준으로 140만~150만톤의 외국산 시멘트가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시멘트를 수입하고 있는 업체는 대한시멘트와 고려시멘트, 기초소재, 수성레미콘 등 6~7개사로 알려졌으며 일부 레미콘업체들도 시멘트 수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한시멘트가 슬래그시멘트를 제조하기 위해 중국산 44만톤과 일본산 33만톤 등 77만 3,000톤을 수입했고 한일대우도 41만 6,000톤을 들여왔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제품의 경우 국내 시멘트 가격의 6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싸이로 등 시설을 갖춘 업체를 중심으로 수입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

다. 이에 반해 시멘트 수입이 태풍 등 기상여건과 수출국 사정 등의 변수가 많아 레미콘업체들이 수입시멘트만으로 레미콘을 생산·공급하는 데에는 위험성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는 레미콘 제조용 원재료 등의 원가절감은 물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中, 중복투자업종 '대수술'

(2003. 10. 23)

중국이 철강, 자동차, 시멘트, 알루미늄 방직 등 5개 업종의 과잉 중복투자에 대해 강도높은 경고를 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3일 '3분기 공업생산동향'을 발표하면서 "철강 자동차 등 5개 업종의 과잉 중복투자가 심각해 이러한 추세를 억제할 수 있는 법률 경제적 조치와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은 도시화와 공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철강, 자동차, 시멘트 등의 업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신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외국기업들이 성장성이 높은 자동차 철강 등의 업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서 과잉 투자 우려가 일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 경제 전반으로는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업종과 품목의 생산능력이 시장 수요와 자원 조달 능력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고 경고했다. 시멘트 분야의 경우 규모가 크고 새로운 공법의 설비 투자가 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소규모의 재래식 공법 투자가 맹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과잉 중복투자 업종은 기업간 합병과 통합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 법률적 수단과 행정조치로 중복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일, 고효율시멘트 제조기술 특허

(2003. 10. 25)

한일시멘트는 콘크리트의 초기강도를 높이고 수

화열을 줄여 구조물의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고효율성시멘트를 개발했다. 한일시멘트는 기존의 고강도 혼합재나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상대적으로 높은 강도를 발휘해 토목이나 건축공사의 공기를 단축하고 내구성을 부여하는 고효율성시멘트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대량 타설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 등에서 초기강도 저하에 따른 거푸집 탈형 시기연장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멘트 사용량이 적은 배합으로도 고강도를 발휘하며 수화열 발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고 한 일측은 강조했다. 고효율성시멘트 제조는 산화칼륨 함량이 1% 이상인 저품위 석회석 80~90%와 점토질 원료 중 점토 또는 납석(2~5%), 자이로사이트 등의 황산염원료(1~3%, 페트코크일 경우 10~15%), 레드머드(1~3%)로 구성된 조성물에 플루오르 아파타이트를 혼합한 후 회전로에서 1,450°C의 소성을 거쳐 별도의 석고첨가없이 분말도 3천~4천 cm²/g로 분쇄하는 공정을 거치게 된다. 한일시멘트는 기존의 초속경시멘트는 제조방법이 보통 포클랜드시멘트 생산라인을 완전히 청소하고 이물질의 혼입을 막아야 하는 불편 등 공정상의 문제와 함께 매스콘크리트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제조비용도 고가라는 단점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일이 개발한 고효율성시멘트는 콘크리트의 초기강도를 향상시키고 수화열 발생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토목, 건축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공기를 단축하고 내구성을 부여하는 시멘트 및 콘크리트 사업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시멘트 육송체계 개편 마무리

(2003. 11. 1)

벌크시멘트트럭을 통해 수송하는 시멘트 육송체계의 개편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1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사태 등을 계기로 운송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는 시멘트업계는 업체별로 운송계약을 맺고 있는 수송사에 대해 BCT를 일정비율 이

상 보유토록 의무화하고 복리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업체별로 BCT차주에 월평균 실질수입이 30만원 가량 인상될 수 있도록 운송료 인상과 지급조건 개선 등을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화물연대 파업이후 업계는 원활한 시멘트 수송과 함께 BCT차주의 실질적인 복리증진을 위해 운송업체에 BCT를 일정비율 의무 보유토록 하고 나머지는 지급형태로 운영하되 지급 수수료도 낮춰 차주의 실질소득이 인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는 시멘트사 육송체계 개편에 따라 운송사와 계약을 하지 못한 차주들은 BCT를 매각하거나 석분 등 타수송계통으로 전직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라파즈, 지난해 시멘트 1억톤 공급 (2003. 11. 3)

세계 최대 시멘트 다국적기업인 라파즈사가 지난해 유럽과 북미, 아시아지역 등에서 출하한 시멘트는 모두 1억 570만톤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라파즈그룹의 지난해 매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보다 6.6%가 증가한 146억 1,000만 유로로 이 가운데 시멘트 부문의 매출은 전년에 비해 16.1%가 증가한 75억 2,000만 유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별 출하량은 시멘트가 1억 570만톤으로 전년에 비해 20.7%가 늘었으며 레미콘은 3,540만³로 9.2% 증가했다. 연간 시멘트 생산능력은 전년에 비해 3.1%가 증가한 1억 3,970만톤이었다. 라파즈그룹은 아시아지역에서 전년보다 26.1%가 증가한 13억 8,800만 유로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 2001년 블루서클사를 인수한 효과가 가시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가운데 시멘트부문의 매출은 9억 8,100만 유로로 30.3%가 늘어났으며 출하량은 17개 일관공장과 5개 분쇄공장에서 전년 1,440만톤보다 46.5%나 늘어난 2,110만톤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출하량 증가를 시현한 가운데 중국에서 신공장건설과 베이징시장의 수요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됐다. 한편 라파즈그룹의 사업부문별 매출비중은 시멘트가 절반에 가까운 49.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골재 및 콘크리트부문 35.1%, 지방 10.1%, 석고 7.6%로 분석됐다.

내년 성장률 5.8% 예상 (2003. 11. 6)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년에는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하반기부터 소비회복이 가시화되면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5.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 및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지금까지 제시한 내년 성장 전망치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6일 '2003년 분석과 2004년 전망'을 주제로한 세미나에서 "교역 상대국들의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한국은 내년도도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전망치인 2.9%보다 상당히 높은 5.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내년 성장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4.8%) ▲삼성경제연구소(4.1%) ▲LG경제연구원(5.2%) 등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다. 금융연구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수출이 경기회복을 주도하고 설비투자는 내년 2·4분기에, 민간소비는 3·4분기 이후 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中, 세계 최대 시멘트시장, 올해 생산량 8억톤(2003. 11. 16)

중국의 시멘트 시장이 급성장하며 세계 각국의 유망 투자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16일 현지 업계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시멘트 생산량은 8억톤에 달해 세계 최대 시멘트 생산국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올해 1~9월간 중국의 시멘트 생산량은 작년 동기에 비해 16.3% 늘어난 5억 8,600만톤으로 집계됐다. 세계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전세계 3분의 1의 시

멘트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한 시장으로 평가했다. 또 향후 몇년간 중국에 새로 건설될 시멘트 공장은 전세계 중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건설되는 공장의 총수보다 많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중국의 시멘트 공장의 외자유치는 1.5%에 불과해 북미와 유럽의 외자 유치 50%, 태국(60%)이나 인도네시아(80%) 등의 외자유치 비율보다 현저히 낮아 외국 기업의 투자유치 여력이 많은 실정이다. KOTRA 베이징무역관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최근 시멘트 부문에서 단독기업으로서 투자진출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더 많은 기업의 중국투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중국내 건축공법 등이 부단히 성숙되고 있어 중국의 대형 시멘트 기업이 세계 10대 시멘트 기업으로 부상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일, 콘크리트 보수공법 개발

(2003. 11. 17)

한일시멘트는 구조물의 열화요인과 진행상태를 정확히 진단한 후 이에 맞는 최적의 보수·방식기법을 설계, 시공해 완벽한 보수성능과 함께 재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레미가드(REMIGUARD)공법을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공법은 다양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노후원인을 분석해 치밀한 보수보강을 시행하는 기술로 하수암거와 교량, 건축구조물, 철도고가교, 지하주차장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한일측은 밝혔다. 또한 일반용과 고내구성용, 내산용, 경량용, 속경용 등 용도에 따라 자체 개발한 레미탈을 활용해 시공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시멘트는 미니싸이로와 수평형 연속 믹싱장치, 스크류식 펌핑장치 등으로 구성된 사일로식 연속믹싱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제공, 시공이 빠르고 인건비 절감효과는 물론 현장의 작업환경 개선과 철저한 배합수 관리에 따른 품질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내산용 단면복구물탈 등은 우수한 내화화성을 지니고 있어 하수관거나 화학공장 등 화학침식환경

의 구조물 보수공사에 탁월한 성능을 낸다고 덧붙였다. 한일시멘트 관계자는 “레미가드공법은 하수관거 등의 보수 등에 필요한 재료의 선택은 물론 시공과 사후관리까지 완벽하게 처리되는 등 시공품질이 우수해 건교부에 건설신기술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시멘트산업 침체 지속

(2003. 11. 22)

올해 일본의 시멘트 내수규모가 최근 10여년간의 하락세 여파로 국내 내수수준인 6,000만톤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시멘트소비는 전년보다 5.9% 감소한 6,460만톤을 기록했으며 올해에도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6,000만톤 이하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규모는 거품경제가 정점에 달했던 지난 91년 기록된 8,650만톤의 69%에 불과한 것이며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이같은 수요감소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가격도 지난 92년 톤당 1만 1,600엔에서 지난해에는 8,200엔으로 하락하는 등 수요감소에 따른 가격급락이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수요감소가 이어지면서 업체들의 생산시설의 폐쇄와 구조조정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 시멘트산업은 모두 20개업체이며 연간 생산능력은 8,330만톤 수준이다. 이중 태평양 시멘트가 연산 2,220만톤으로 전체의 26%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미토모 오사카시멘트가 14.7%, 미츠비시 메타리얼사가 14.2%로 3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 94년 오사카시멘트와 스미토모시멘트간 합병이 이뤄진 이후 오노다시멘트와 치치부시멘트, 니혼시멘트의 합병으로 태평양시멘트가 탄생하는 등 인수합병이 이뤄졌다. 현재는 이같은 인수합병이 마무리된 것으로 분석했다.

레미콘시장 7조 규모 돌파

(2003. 11. 24)

레미콘산업의 시장규모가 올해 7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전국적으로 가격인상과 함께 건설현장의 수요가 동반되면서 연말까지 총출하량이 전년 1억 3,737만^m³에 비해 5~7%가 늘어난 1억 4,500만^m³~1억 4,700만^m³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올해의 시장규모는 전년에 6조 8,000억원보다 5,000억원이 증가한 7조 3,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조원 가량의 시장규모를 갖추며 지방도 4조 내외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올해의 출하 증가세는 외환위기 이후 성장세를 주도하던 수도권의 출하량이 주춤한 가운데 강원과 영남지역의 출하가 크게 활기를 띠면서 지방이 레미콘산업의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업 e-비즈니스,

타산업 비해 낙후(2003. 11. 26)

건설업의 e-비즈니스 수준이 금융, 전자 등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가 전경련과 공동으로 건설, 금속, 통신, 금융 등 13개 업종의 매출상위 50개, 총 650개 기업의 e-비즈니스 '인덱스'를 조사한 결과 건설업의 수준이 49.4포인트로 전산업의 평균치 51.6포인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비즈니스 인덱스란 기업의 e-비즈니스 현황과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계량화된 일종의 '이용 성적표'를 지칭한다.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보다는 e-비즈니스 수준이 1.2포인트 상승했으나 대형 업체를 제외하고는 전통적인 사업방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e-비즈니스의 진척이 더딘 것으로 분석됐다. 산자부는 그러나 국내기업 전체의 e-비즈니스 수준은 지난해 50.8포인트에서 51.6포인트로 소폭 상승, 기업의 e-비즈니스화가 기업내 통합 단계에서 기업간 통합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별 e-비즈니스 수준은 금융이 68.5포인트로 가장 높고 제조업 중에서는 전자와 자

동차가 각각 56.3, 55포인트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섬유와 펄프제지가 각각 41.1, 38.1포인트로 나타나 업종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정부, 제조업 지원 위해

산업용 전기료 동결(2003. 12. 2)

제조업 설비투자과 가동지원을 위해 내년 산업용 전기요금이 금년 수준에서 동결된다. 또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이 유지되거나 확대되며 제조업 공동화 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태스크포스팀이 운영된다. 산업자원부는 2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 윤진식 산자부 장관, 강신호 전경련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기업투자애로해결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는 내년 2.5%를 인상한다는 당초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시행될 경우, 2,410억원의 요금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기업의 환경 및 재활용 설비에 대한 투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환경설비자금 융자금리를 현행 5.5%에서 4.9% 내외로 낮추고 연말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하위규정 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2년 연장, 법인세율 2% 포인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6개월 연장,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제도 2년 연장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제조업 공동화 방지를 위해 제조업, 서비스업, 문화산업을 포함한 산업구조 혁신전략을 점검하고 제도 보완을 위해 각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철도운송료 인상에 시멘트업계 반발

(2003. 12. 8)

철도청이 최근 화물수송에 따른 운임을 기습 인상하면서 시멘트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철도청이 지난 1일 이후 수송되는 화물

의 운임을 일률적으로 5% 올리면서 시멘트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철도운송료 인상으로 시멘트업계는 연간 60억원 이상의 부담을 추가로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업체 관계자는 “단양과 제천 등 중부지역 시멘트업체는 파업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BCT를 통한 육송과 함께 철송 등으로 수송수단을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지만 철도청이 화물수송 운임을 무분별하게 인상하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철도운임은 적정가격의 60%에 불과해 앞으로 30% 가량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전제하고 올 초부터 철도운임을 10%의 인상을 검토했으나 시멘트업계의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폭을 5%로 낮추고 인상시기도 늦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청이 철도를 통한 화물운송을 통해 연간 3,200억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이중 40%인 1,300억원 가량을 시멘트업계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토연구원, 내년 건설투자 증가율 2.1%(2003. 12. 11)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2004년 건설경기 잠정 전망’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81조 4,640억원으로 올해 추정치 79조 7,860억원보다 2.1%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최저이며 지금까지 발표된 정부나 민간연구기관의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건설투자는 지난 2001년 5.3%가 늘어 증가세로 반전된 이후 2002년 3.3%가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6.1%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구원은 국내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어도 불구하고 건설경기는 올 하반기에 잇따라 도입된 각종 부동산규제 조치에 따라 하강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부문별로는 주거용의 경우 25조 6,020억원으로 올해(24조 9,730억원)보다 2.5%, 비주거용은 상업용의 부진으로 3.8%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토목용은 내년 사회간접자본

시설(SOC)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해 0.9%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이 내년에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 2005년에도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건축허가면적은 이후에도 부동산경기가 위축되며 주거용 등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4.5%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은행, “내년 경제 5.2% 성장 (2003. 12. 12)

한국은행은 11일 ‘2004년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성장률이 올해 2.9%에서 내년에는 5.2%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반기에는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4.8%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하반기에는 설비투자가 회복되면서 5.6%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올해 1.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내년에는 3.2%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도 수출호조로 생산활동이 호전돼 가동률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기업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올해 1.2% 감소에서 내년에는 6.5% 증가세로 반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경기침체의 주원인이었던 내수와 설비투자 부진이 내년에는 개선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의 절반 수준인 60억달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3.6%)보다 낮은 2.9%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내년 해외 여건이 중동정세 불안, 테러확산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외하고는 우리 경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지만 국내적으로는 노사갈등 악화 가능성, 금융시장 불안, 복핵문제 등 향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그러나 정치적·사회적 불안요인이 올해보다 더 악화되지 않을 경우 내년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5%대로 높아지고 물가상승률은 3% 내외에서 안정되며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낙관했다.